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 건강보험개혁법 논란 심화

□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법안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공화당을 중심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됨.

-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하원 공화당 대표들은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, 2011년 하원 개원과 함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- 12일로 예정되었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은 최근 발생한 애리조나 주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연기됨.
-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이 국가 채무를 크게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음.
- 그러나 폐지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폐지안 반대가 확실시되고 오바마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개혁법이 실제로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□ 갤럽은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, 재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는 폐지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.

- 갤럽의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 중 46% 가량이 폐지안에 찬성하고 40% 가량이 기존 개혁법의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정당별로는 공화당원의 80%와 민주당원의 70% 가량이 각 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남성의 경우와 50~64세의 중년층에서 폐지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며, 여성의 경우와 30세 미만 성인에서는 기존 법안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단별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.
- 한편 미상공회의소의 토마스 도나휴 의장은 연두연설을 통해 하원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 표결이 건강보험 문제를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폐지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.

(USA Today, 1/8)